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 (Ⅲ): 성취의 그늘, 한국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심리적 역동*

박 영 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김 의 철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이 글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5), 특집호, 제 3권의 주제인 한국사회 성취의 그늘에 있는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심리적인 역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발표된 한국 일탈청소년과 관련된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개관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일탈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실제적 지도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이 글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일탈행동에서 벗어나서 질적으로 다른 성취를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에 주목하였다. 둘째, 일탈청소년 주변의 인간관계 특징을 부모의 거부, 또래 따돌림, 교사와의 적대적인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 작용하는 변인들 중에 특히 부모양육태도의 문제, 친구 일탈행동의 영향, 청소년 도덕적이탈의 심리, 과거의 일탈경험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들을 분석 종합하였다. 넷째, 한국 일탈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토착심리적 접근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주요어 : 일탈행동, 부모 양육태도, 또래 따돌림, 교사 적대, 도덕적이탈, 토착심리 개념모형, 사이버 일탈, 삶의 질

* 이 논문은 2007년도 인하대학교 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 yspark@inha.ac.kr.

한국 사회 교육적 성취의 그늘

한국 청소년의 높은 학업성취는 국제비교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높은 성취의 심리적 토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중등교육에서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관심은 각종 국제학술대회에서 중요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김의철, 박영신, 2007)하였다. 그리고 교육에 몰입하는 한국의 부모와 자녀에 관련된 현상들을 통해, 성취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한국인 심리의 역동에 대한 분석에 많은 관심(박영신, 김의철, 2007)들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적인 성취에서 질적인 성취로 발전하고, 이것이 삶의 질의 문제로 연결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박영신, 2007)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교육적 성취에 전념하듯이 청소년들의 부모세대들은 일에서의 전문적 성취, 가계를 위한 경제적 성취, 또는 사회적 성취 등을 향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성취라는 화두를 향해 줄달음치는 동안, 그러한 성취의 삶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과 같다. 한국 청소년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 동안, 그러한 성취의 대열에서 뒤떨어져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당연히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에 속하게 된 청소년들의 좌절은, 한국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성취가 각광을 받는 만큼이나 처절하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취하는 사회의 이면에서 함께 존재하면서 성취하지 못하는 하위집단의 절망적 삶은, 성취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고통의 세계를 함축한다.

여기에서는 주된 문화로서 성취의 세계, 그 그늘에 놓여 있는 하위문화로서 일탈의 세계를 직시하면서, 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가능성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가능성의 세계에 대한 관심에 토대하여 청소년 일탈행동에 접근하는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능성의 세계

일탈청소년 주변의 열악한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여건이나 주위사람에 대한 원망을 강화시키고, 결국 그러한 환경을 딛고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본인의 낮은 자기효능감이나 자기존중감 결여로 인해 더욱 자포자기하게 된다. 희망적 요소의 상실은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규범의 틀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부채질하며, 자신이나 주변을 파괴하고 해치는 일탈적 행위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 도덕적 이탈의 심리가 작용하면서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일탈행동의 누적은 용이해지고, 이에 비해 한번 일탈된 궤도에 새로이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창조를 향한 생산적 에너지의 세계가 아닌, 파괴적인 부정적 에너지의 세계에 일탈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절망적으로 맡겨나가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그늘진 부분이 우리 사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한 예로 학교폭력의 일반화된 확대(곽금주, 2005)를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기로 한다. 즉 성취와 다른 세계로서의 일탈의 세계, 그리고 일탈에서 성취로의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라는

면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그림 1은 성취와 일탈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두 세계를 대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취의 세계에서는 유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 제도권의 공교육기관에서 치열한 학업성취를 목표로 하고, 이러한 학업성취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다. 부모들의 높은 교육적 요구는 취학 전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자녀의 적성을 개발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유아교육기관을 찾는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학교만이 아니라 학원을 다니며, 이를 위해 부모들이 투자하는 교육비는 가계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대학입시에서 성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가정 전체가 입학시험 준비에 전념하고 사교육 열풍이 일어난다. 학

업성취에 대한 부모나 자녀의 포부수준이 대학교 입학 후에도 높아서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많다. 공교육기관에서의 성공적인 성취는 좋은 직장에 취직할 확률을 높여준다. 따라서 학업성취가 직업에서의 성취를 담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직업성취는 인생의 성공으로 지각되므로,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 인생의 행복을 위한 기반으로 학업성취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 하에 학업성취를 위해 전력투구한다. 학창시절에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직장생활에서도 유사한 원리로 적용된다.

그러나 일탈의 세계는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취의 세계와 전혀 다르다. 드롭아웃 등을 이용하며 목적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리의 청소년들, 쉼터와 같은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 보호시설에 잠시 거처를 정하지만 규율과 제재가 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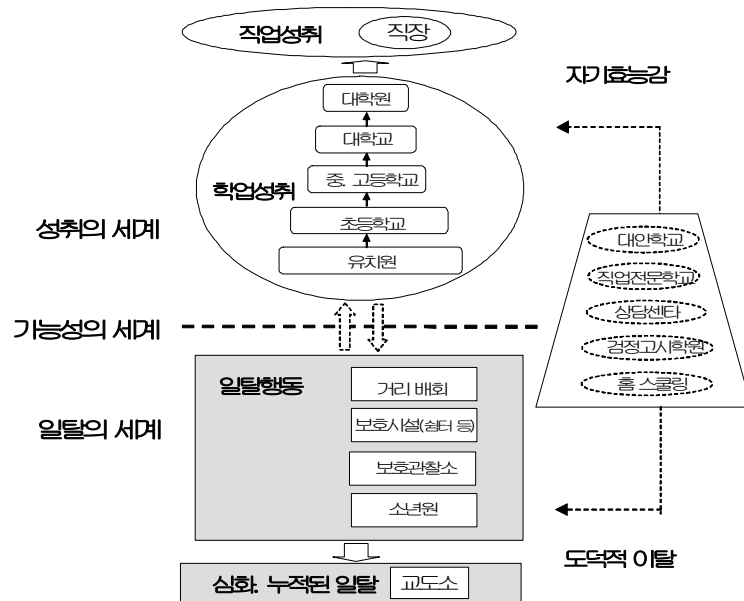


그림 1. 질적으로 다른 성취와 일탈의 세계, 그리고 가능성의 세계

하여 다시 이런 곳에서도 뛰쳐나오게 된다. 또래들과 어울리며 일탈행동에 개입하다보면, 결국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자포자기하여 반복적으로 일탈행동을 누적하다 보면 재범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원으로 배치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순간적인 도덕적이탈의 심리로 일탈행동을 하지만, 일탈행동을 반복하다보면 도덕적이탈의 심리가 강화되어 일탈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게 된다. 소년원에서 유사경험 집단과의 생활을 통해 일탈행동의 기술을 익히고 심화하는 부정적인 계기가 되기 쉽다. 이러한 일탈행동이 성인기에도 지속되면 범법행위자로 교도소에 갇 확률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 교육적 성취의 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청소년 일탈, 이 두 세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a, p.64, 그림 1 참고)은 청소년의 경험과 심리 행동의 형성에 관한 개념모형에서, 주된 문화의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행동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누적시킨다고 했다. 그러나 하위문화의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경험은 도덕적 이탈을 심화시켜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 사회가 제공하는 부정적인 피드백은 더욱 부정적인 경험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두 집단의 문화가 형성되며 심화된다. 즉 주된 문화와 하위문화는 각각 지속적인 과정에서 나선형의 자체 순환에 빠지기 쉽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은 시작된다. 이러한 인과의 순환적 고리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러한 계기에 대한 이해에 청소년 일탈행동 연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의 실천에 일탈청소년 상담이 집중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일탈의 세계에서 성취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그림 1에 포함되어 있다. 학교에 부적응하는 청소년이 일탈의 세계로 빠져들지 않고 다양한 대안교육을 통해, 또 다른 방식의 성취 세계로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또는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곳에서 학업성취보다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직업선택의 기회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일탈행동의 잠재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실제 일탈적 삶에 젖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 내에 조직되어 있는 다양한 상담센터 등을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적인 기관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검정고시 학원 등을 통해 제도권 교육에 다시 진입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업지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아니지만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통해 부모가 다양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도도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계(서정아, 권해수, 정찬석, 2006)는 우리가 이러한 가능성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시사한다. 15세에서 18세의 기준으로 볼 때, 최소 10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안학교 청소년 5,000여명,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2500여명, 소년원에 수용되거나 보호관찰 청소년 9,000여명, 사설교육기관 교육을 받는 청소년과 홈스쿨링 교육받는 청소년을 제외하면, 약 50,000여명은 아무런 국가적 제도적 지원없이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도움만으로 대책없이 방치되어 있다. 10만 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완전히 일탈의

세계에 빠진 경우와, 가능성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 경우 모두 있다. 일탈청소년은 가능성의 세계로, 가능성의 세계에서 혼란한 청소년은 성취의 세계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탈의 하위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어렵다고 인식하는 마음을 버리고 어두운 현실을 가능성의 세계에서 조망하며 성취를 지향하도록 비전을 심어주는 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통로들이 있어야 한다. 물론 기존의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그러한 통로들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정규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한국의 소년범죄 중에서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1년(61.6%)에서 2005년(67.4%)까지 증가하는 추세(국가청소년위원회, 2006)에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탈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에 개입한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받아들여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도와 새로운 조직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가 개방적이고 구성원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의 목적과 내용

이 글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일탈청소년의 삶을 성취와 희망의 세계로 연결하는 필요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열망에 토대하여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관심 속에서 이 글은 한국 사회의 교육성취 그늘에 가려진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심리적 역동과정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며, 이러한 이해를 위해 관련된 경험과학적 연구의 결과들을 개관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일탈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실제적인 상담 지도가 나아갈 방향에 관련된 시사점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선행연구들의 종합적 개관을 통한 분석 결과가, 일탈에서 벗어나 성취의 세계로 나아가는 가능성의 씨앗을 탐색하는데 부분적으로라도 기여하는 하나의 기반이 되고 실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일탈 청소년 주변의 인간관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의미있는 주위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의 거부, 또래 따돌림, 교사와의 적대적인 관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 작용하는 변인들 중에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즉 부모양육태도의 문제, 친구 일탈행동의 영향, 청소년 도덕적이탈의 심리, 과거의 일탈경험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들을 개관하여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일탈행동에서 벗어나 성취의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능성의 세계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한다. 여러 전략이 가능하겠으나, 이 글에서는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와 일탈행동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토착심리적 접근이라는 개념모형을 제안하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이외에도 일탈청소년에게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변인들의 특징을 밝히고, 나아가서 삶의 질 향상과 결부하여 살펴볼 계획이다.

사실상 일탈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는 엄청나게 누적되어 왔다. 그렇게 많은 연구들이 있

다는 것은 그만큼 큰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또 그러한 누적된 결과들이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결과들이 산재해 있어, 그 많은 지식들을 통합하여 간명하게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 최근에 일탈청소년과 관련하여 진행되어온 여러 경험과학적 연구들을 종합하여 공통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일관된 결과들을 찾아 핵심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다면, 이 글이 갖는 연구적 의의가 될 것으로 본다.

교육적 성취의 그늘에 존재하는 청소년들의 삶의 내용은 다양하다. 단순히 성취가 결여된 상태에서 열등감으로 고생하거나 학교에 부적응하는 정도의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로부터, 이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탈행동이나 나아가서 범죄에 관여하는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정도에 차이가 많다. 그것은 어두움도 깊은 밤에서부터 여명이 밝아오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깊이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 청소년 그들의 세계에 속하는 모든 주제들을 다 포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글에서의 종합적인 개관을 통해 밝혀지는 핵심 내용들은, 연구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 일탈행동의 상담 및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서 하나의 기초적인 틀로서 활용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벗어나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늪

일탈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자료가 활용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인간관계 측면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박영신과 김의철(2004c)도 일탈청소년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변인 중에서 인적 환경으로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분석을 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의 연구결과도 포함하여,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의 문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위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일탈청소년도 주위사람들과 관계에서 독특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움직일수록 빠지는 늪과 같이 일탈청소년들은 그들 주변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그러한 관계적 환경이 일탈청소년의 삶을 옥죄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4c)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관계 중에서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내팽개치는 부모, 버려지는 아이들

일탈청소년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인간관계 경험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다.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김의철, 박영신, 2004; 박영신, 김의철, 2005c) 부모는 자기가 확대된 자기 존재의 일부(Kim, 2002)인데, 그러한 부모로부터 내팽개쳐지는 경험은, 청소년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일탈로 내몰아가는 지름길이 된다.

그림 2에 소년원인 **정보통신 중고등학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학생인수 포기각서와 학생인수 보호각서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학생인수 포기각서는 자녀가 소년원에 있다가 출소할 때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데려가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표하는 각서이다. 그리고 학생인수 보호각서는 위와 같이 부모

학생인수 포기각서

학생 보 호 자	성명	인원번호		
	입원일자	비행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관계	
	주소	전화		

본인은 상기 학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수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보호자 (인)
○ ○ ○ 귀 하

학생인수 보호각서

학 생 보 호 자	성명	인원번호		
	입원일자	비행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관계	
	주소	전화		

보호조치계획

본인은 상기 학생을 인수하여 퇴원 후 보호에
월저를 기하겠으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보호자 (인)
○ ○ ○ 귀 하

자녀양육권 포기각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상기 본인은 _____으로 인하여
_____의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0년 ○월 ○일
위 신청인 : ○ ○ ○ (인)
○ ○ ○ 귀 하

그림 2. 학생인수 포기각서, 학생인수 보호각서, 자녀양육권 포기각서

가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다른 보호자가 그 학생을 대신 인수해서 보호하겠다는 각서로 사용이 된다. 또한 그림 2의 자녀양육권 포기각서는 주로 민사소송에서 자녀양육권을 포기할 때 사용되는 양식이다.

이러한 학생인수 포기각서나 자녀양육권 포기각서는 모두, 부모가 친자녀를 버린다는 공식적인 기록이며, 이러한 각서는 혈연으로 묶여져있는 한국인의 강한 부모자녀관계의 끈도 현신짝처럼 버려짐을 의미한다. 소년원에 고 통스럽게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이러한 통보를 받는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청소년은 절망과 좌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며, 통제할 수 없는 일탈의 세계에 빠져들기 더욱 쉽다. 물론 소년원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자녀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거부되고 무시되며 버림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때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충격과 영향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 달리 말하면 거부적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이 자녀의 일탈행동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가를 밝히는 연구들이 있다. 정현희와 정순희(2004)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문제행동 중에서 공격적 행동은 부모 양육행동 중에서 거부 제재와 정적인 관계를, 온정 수용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공격적인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0)이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의 왼쪽 그래프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를 β 값으로 제시한 것이다. 초등학생 경우에 아버지의 거부적인 태도가 자녀의 일탈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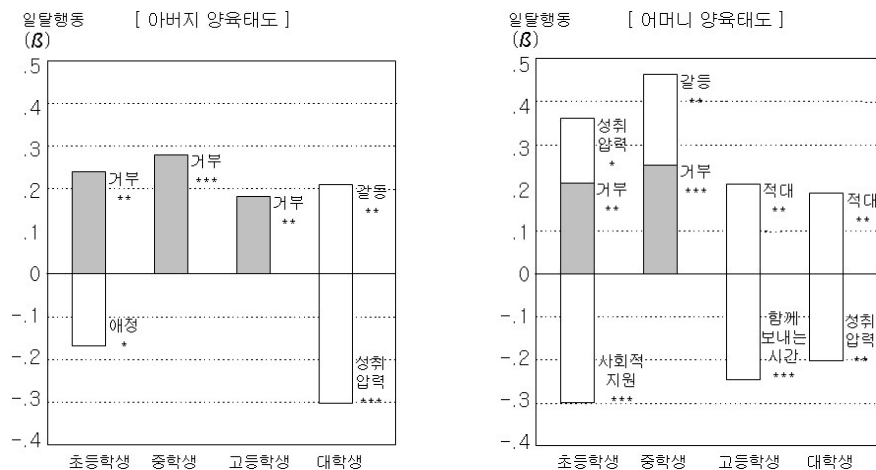


그림 3.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일탈행동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0, p.26)

애정이 없는 것도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모두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만이 자녀의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의미있는 변인이었다. 한편 대학생의 경우는 초 중등학생과 조금 패턴이 달랐는데, 아버지의 성취압력이 낮을수록, 또한 갈등이 많을수록, 일탈행동이 증가하였다.

그림 3의 오른쪽 그래프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자녀의 일탈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초등학생은 어머니가 사회적 지원을 적게 제공하고, 거부적이거나 성취압력을 줄수록, 일탈행동에 더 많이 개입하였다. 중학생은 어머니가 거부적이거나 갈등관계에 있는 자녀들일수록, 더욱 일탈행동을 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고 적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대학생은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낮거나 적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일탈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일탈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학생처럼 성장한 뒤보다는 초 중고등학생과 같이 어릴수록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극단적으로 자녀를 내팽개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은 부부 불화로 인해 이혼이 증가되면서 자녀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이다. 이 외에도 경제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다. 또는 자녀에 대한 학대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습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 일탈행동은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청소년이 경험한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가 싫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가출소년의 절규(박영신, 김의철, 2004b)는, 일탈청소년 집단에서는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상징

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거부적인 부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보다 다양한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따돌리는 친구들, 어울리는 일탈청소년

일탈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거부되거나 적대적으로 취급되거나 무관심하게 방치되는 가정에 속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시에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박연정과 정옥분(2003)의 연구에 의하면, 또래 괴롭힘은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r=-.66$) 및 친밀한 관계($r=-.45$)와 부적 관계에 있었으나, 대립적 관계($r=.38$)와는 정적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아동들이 또래괴롭힘과 같은 일탈행동에 개입함을 보여준다.

원만하지 못한 친구관계는 청소년기에 심각한 심리 행동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탈청소년은 부모와 건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집단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갈등이나 따돌림을 경험하는 고통을 부모와 의논할 가정환경이 아니다. 그렇다고 청소년 혼자서 친구들과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일탈청소년이든 일반청소년이든 괴로울 때 친구와 가장 많이 의논(박영신, 김의철, 2004b)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기에 친구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가정환경도 열악한데 친구관계마저 원만하지 못하면, 건전한 발달을 하기가 더욱 어렵다.

친구의 따돌림은 일탈청소년 집단에 쉽게 어울리는 계기가 된다. 본인과 같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또래집단으로부터도 소외되는

일탈청소년들끼리 유사성을 느끼며 서로 의지하고, 더욱 친밀한 유대관계가 강화된다. 일탈청소년 집단에 속하면 다른 일탈청소년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심리적으로 도덕적이탈도가 가속화되고, 다양한 일탈행동에 개입할 기회도 점차 증가된다.

그림 4는 일탈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에서 따돌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왼쪽 그래프는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가해집단, 폭력피해집단, 폭력무경험집단으로 분류하여, 세 집단 간의 친구 따돌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집단 간에 매우 의미있는 차이($p<.001$)가 있었는데, 가해집단이든 피해집단이든 폭력경험집단은 폭력무경험집단보다 친구들로부터 더 따돌림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림 4의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위탁청소년 집단(자발적으로 쉼터로 가거나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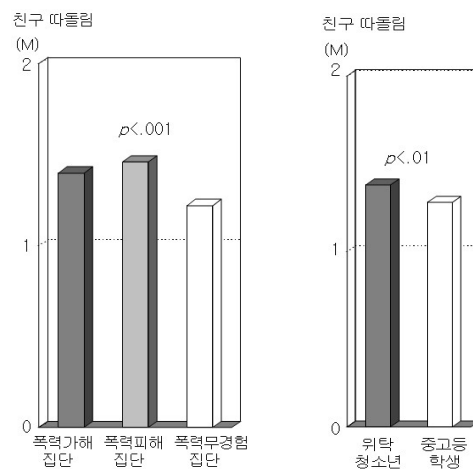


그림 4. 일탈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의 친구 따돌림 차이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1a, p.76);

박영신, 김의철(2001b, p.40)

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교육청의 교육프로그램에 보내진 청소년들로 구성됨)과, 일반 중고등학생 집단을 비교(박영신, 김의철, 2001b)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위탁청소년 집단이 일반 중고등학생보다 친구들로부터 더욱 따돌림을 경험($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따돌림과 청소년 일탈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일련의 결과들이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5의 왼쪽에 중3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를 보면, 친구 따돌림과 청소년 일탈행동은 정적 관계를 보인다. 이는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청소년들이 일탈행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컴퓨터게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인터넷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이 기존의 일탈행동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의 일탈로 확대되

고 있다. 그림 5의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친구관계와 청소년 사이버 일탈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a)이다. 사이버일탈행동은 친구의 따돌림과 정적인 관계를, 친구의 정서적 지원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림 5의 오른쪽에 동일한 측정도구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b)가 제시되어 있다. 대학생의 경우도 고등학생과 동일한 관계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보아, 학교폭력경험 청소년이든 위탁청소년들이든 간에 일탈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탈청소년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더욱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은 사이버 일탈행동과 정적인 관계에 있어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따돌림을 받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일탈행동에 더 몰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대학생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또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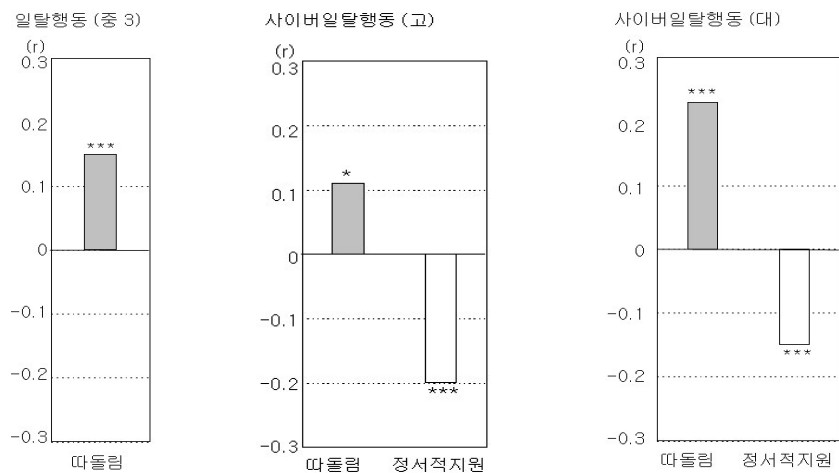


그림 5. 친구의 따돌림, 정서적 지원과 청소년 일탈 및 사이버 일탈행동의 관계

출처: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2007, p.13);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2007a, p.243);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2007b, p.124)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청소년이 일탈청소년 집단으로부터 수용되거나 사이버세계에 몰입하여 일탈적 성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불신하는 교사, 빛나가는 아이들

부모나 친구만이 아니라 교사와도 일탈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다른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예로 I광역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로서 열악한 환경의 D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건물과 시설에 방화하는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여, 방화하는 학생들을 찾기 위해 교사들이 퇴근을 못하고 당번을 정해 학교를 지키는 일이 현재(2007년 10월) 있다. 그런데 장학지도를 위해 이 학교에 출장을 간 장학사의 관찰에 의하면, 지치고 짜증난 교사들이 학생들을 방화범 취급하여 매우 험악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도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며, 상호 불신이 극도로 팽배한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

고 있었다. 사실 한국의 중 고등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는 중요한 이유로서 선생님들이 아껴주고 관심있음, 존경함, 부모와 같은 존재, 학생들을 위한 고생과 희생 등이 포함(김의철, 박영신, 2004)되었다. 그러나 D고교 학생들은 교사가 자기를 아껴준다고 지각한다든가, 또는 교사에 대해 부모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기 어려운 삭막한 학교풍토에서, 교사에 대한 불신이 강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학생관계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학생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탈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학교 방화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가 없고 적대적인 관계가 일탈청소년들의 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들이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의 연구에서 폭력가해청소년들일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더욱 적대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6의 왼쪽 그래프를 보면, 폭력가해집단이 교사 적대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폭력피해집단이며,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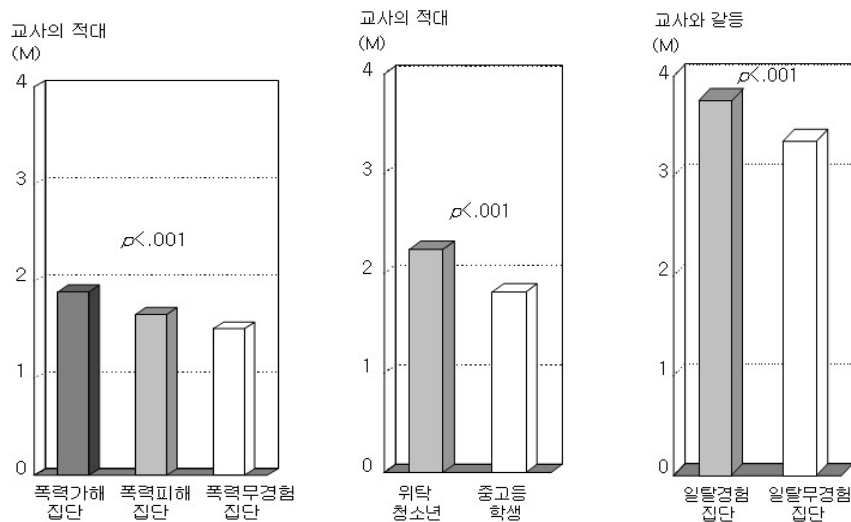


그림 6. 일탈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사와 관계 차이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1a, p.76); 박영신, 김의철(2001b, p.40); 김영희, 박영신, 김의철(2004, p.210)

력무경험집단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 집단 간의 차이는 매우 의미있었다($p < .001$).

또한 박영신과 김의철(2001b)의 연구에서 위탁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은 교사와 관계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p < .001$)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의 가운데 그래프를 보면, 위탁청소년이 중고등학생보다 교사 적대 변인에서 더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위탁청소년들은 일반 중고등학생보다 교사가 자기에게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탈경험집단과 일탈무경험집단간에 교사와 갈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가, 그림 6의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다. 일탈경험집단이 일탈무경험집단보다 교사와 갈등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교사학생관계와 청소년 일탈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영희(2007)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교사와의 적대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록 관계의 강도가 강하지는 않았지만 관계의 방향이 정적이었으며 매우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림 7은 교사학생관계와 사이버 일탈행동간의 상관계수를 그림으로 제시한 결과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왼쪽의 그래프(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a)를 보면, 교사와의 적대적인 관계는 사이버 일탈행동과 비교적 높은 정적인 관계($r = .30$)에 있으며, 교사의 정서적 지원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경우도 교수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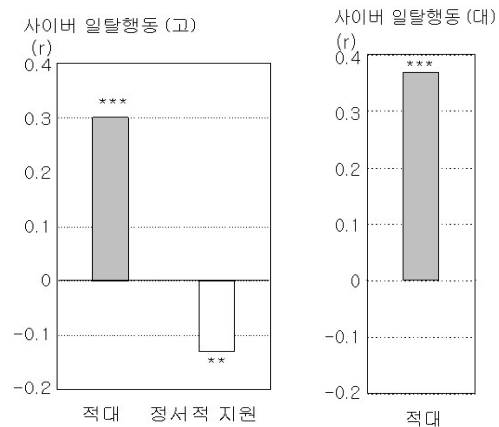


그림 7. 교사의 적대 및 정서적 지원과 사이버 일탈행동의 관계

출처: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2007a, p.243);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2007b, p.124)

적대적인 관계는 사이버 일탈행동과 높은 정적인 관계($r = .37$)를 보였다(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b).

일탈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더욱 적대적이고 갈등도 더 많으며(그림 6 참고), 이러한 교사와의 적대적인 관계는 사이버 일탈행동과도 밀접한 정적인 관계(그림 7 참고)에 있었다. 그러므로 교사와의 적대적이거나 갈등적인 관계는 일탈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교사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원은 일탈행동과 부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탈청소년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지는 길

태어나면서부터 일탈청소년으로 될 것이 확정된 상태로 출생하는 아기는 없을 것이다. 결국 태어난 뒤에 특정 가정환경에서 부모양

육태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부모자녀관계는 아동기 이후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친구관계의 유형과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주위의 의미있는 타인들과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심리와 행동을 형성하는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작용(박영신, 김의철, 2004c; 2005a; 2005b)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 변인 외에도 청소년의 도덕적이탈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나 누적되어온 일탈행동과 같은 경험적 요소들은 청소년 일탈을 설명하는 의미있는 요인들(Park & Kim, 2001)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일탈청소년의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져나가는 일종의 길과 같은 과정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있는 변인들을 다룬 선행연구 결과들을 개관하기로 한다. 특히 네 가지 측면, 즉 부모자녀관계, 친구의 일탈행동, 도덕적이탈의 심리, 누적된 일탈경험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인들이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서 어떠한 역동적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동안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종단적인 자료를 기초로 검증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및 개관 논문(박영신, 김의철, 2003)도 있었다. 여기에서는 보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토대하여 종합적인 개관을 시도하기로 한다.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 일탈행동

청소년 일탈의 가장 근원은 흔들리는 가정의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에 있다. 위에서 일탈청소년들이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를 통해 더욱 일탈행동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간략히 지적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외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자세히 살펴보

기로 한다.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집단 내에서 학교폭력 가해집단과 피해집단 및 폭력무경험 집단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부모와 적대적인 정도를 비교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1a)가 있다. 그림 8의 왼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폭력무경험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피해집단 폭력가해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폭력가해집단이 더욱 적대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영희, 박영신과 김의철(2004)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탈경험집단과 일탈무경험집단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가, 그림 8의 가운데에 있다. 부모의 적대적인 양육태도만이 아니라 무관심, 거부, 갈등 하위변인에서 모두 의미있는 차이($p < .001$)를 보였다. 그러므로 청소년 초기에 일탈을 경험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모가 적대적이고 거부적이며 무관심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갈등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집단 내에서의 비교가 아니라, 그러한 일반 학생들과 쉼터 및 교육청에 위탁되어 있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비교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1b)가 있다. 그림 8의 오른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 중 고등학생들이 위탁청소년보다 부모 적대의 평균이 낮았다. 그러므로 위탁청소년들이 일반 중고등학생들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적대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탈청소년 중에서도 보호관찰청소년을 분석한 결과가 있다. 박영신, 김의철과 탁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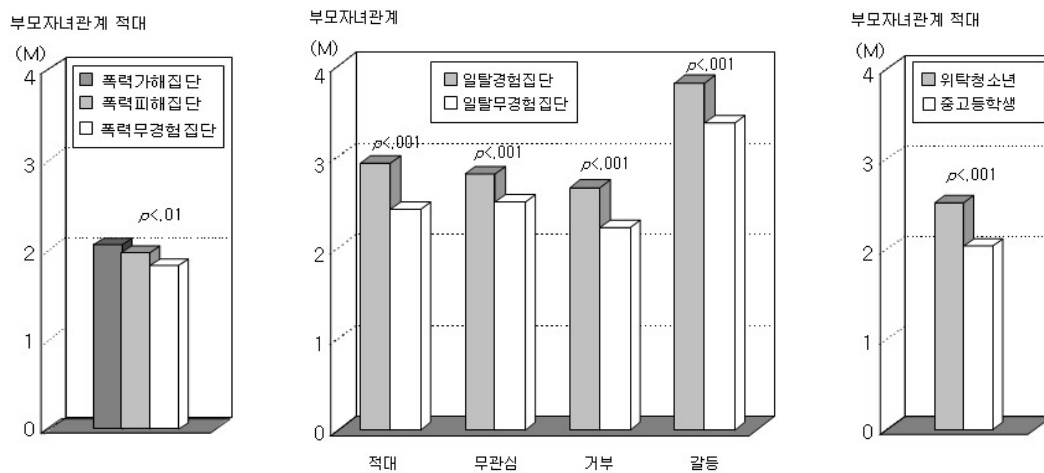


그림 8. 일탈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차이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1a, p.76); 김영희, 박영신, 김의철(2004, p.210); 박영신, 김의철(2001b, p.40)

(2004)이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 자녀관계를, 청소년의 시각과 부모의 시각에서 각각 분석한 결과가 그림 9이다. 그림 9의 왼쪽 그래프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이다.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신뢰와 부모와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모두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1$). 즉 보호관찰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반면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한편 그림 9의 오른쪽 그래프는 부모들이 지각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보호관찰청소년의 부모는 일반청소년 부모보다 자녀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p < .001$), 더불어 배우자에 대한 신뢰 역시 낮게 나타났다($p < .001$). 그러나 청소년 자녀와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보호관찰청소년 부모집단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p < .001$).

그림 9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호관찰청

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부모에 대한 신뢰가 낮았고, 보호관찰청소년 부모 또한 일반청소년 부모보다 자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상의 그림 8과 그림 9에서 청소년 집단별로 지각된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가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 일탈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들에서도 일관된 경향이 나타났다. 박영신과 김의철(2000)의 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 일탈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거부(초 $r = .29$, 중 $r = .29$, 고 $r = .18$, 대 $r = .16$), 적대(초 $r = .28$, 중 $r = .24$, 고 $r = .23$, 대 $r = .19$), 무관심(초 $r = .26$, 중 $r = .23$, 고 $r = .23$)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 일탈행동의 관계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즉 부모의 거부나 적대나 무관심은 자녀의 일탈행동과 모두 정적인 관계이었다.

최근의 연구(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에서도 부모의 거부나 적대는 중3 청소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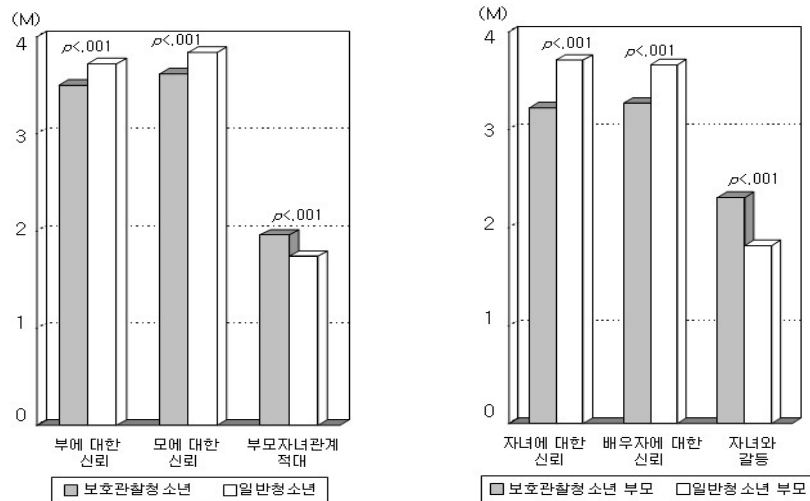


그림 9.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출처: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4, p.126-128)

일탈행동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비록 상관의 강도가 높지 않았으나 정적인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부모의 거부적이거나 적대적인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청소년 일탈행동이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친구 일탈행동의 영향

인문고와 실업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친구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예정b)에 의하면, 친구의 일탈행동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매우 강한 영향($P=.58$)이 있었다. 한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부적인 영향($P=-.32$)이 있었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친구 자기효능감으로부터 정적인 영향($P=.42$)을 받았다. 그러므로 친구가 일탈행동을 하면 청소년도 영향을 받으며, 친구가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청소년도 영향을 받아 자기효능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들일수록 일탈행동에 더 많이 개입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가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사한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박영신, 김의철, 예정b)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범죄행위가 인정된 청소년들을 대상(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3)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친구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10은 보호관찰청소년 경력집단로 친구 범죄경력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초범집단과 재범집단은 친구의 범죄 경력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p<.001$)를 보였다. 즉 초범집단(77.5%)은 재범집단(47.1%)보다 친구의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았다. 반면에 친구의 범죄 경력이 한번 있다는 경우는 초범 집단(14.4%)이 재범집단(29.4%)보다 훨씬 적었고, 친구의 범죄 경력이 더 많이 있는 경우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보호관찰을 누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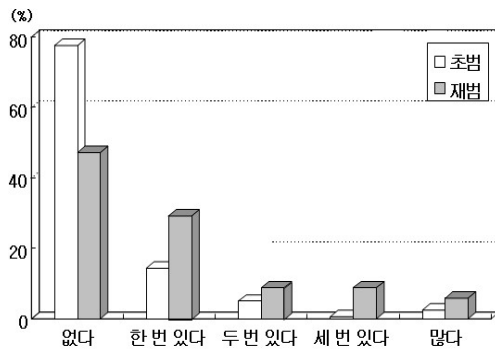


그림 10. 보호관찰 경력별 친구의 범죄경력
출처: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2003, p.166)

서 받는 경우에 그 주변 친구들을 보면, 점차 더 많은 범죄행위에 개입하고 있는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 일탈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친구들도 점차 부정적인 범죄에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결국 일탈청소년들이 친구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친구의 범죄경력만이 아니라, 비행친구와 만나는 장소, 활동내용, 빈도나 비행친구와의 관계도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탁수연, 박영신과 김의철(2003)의 연구에 의하면,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고등학생은 친구와 만나는 장소 및 활동내용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일반고등학생은 학교라는 응답이 24.5%로 가장 많았다면, 보호관찰청소년은 PC방이나 오락실에서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김경식과 이현철(2006)이 여러 잠재변인들이 포함된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을 때, 청소년일탈에 대해 비행친구의 직접효과가 가장 컸다. 또한 가정환경이나 개인의 특성은 비행친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비행친구는 이러한 변인들과 일탈행동의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서

비행친구의 측정변인은 비행친구와 만남의 빈도 및 비행친구와의 관계 두 가지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가정의 월평균소득이 낮고 아버지 직업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이나, 자기에 대한 통제나 존중감이 낮은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비행친구를 만나는 빈도도 높고 비행친구들과 더욱 밀접한 친구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서 일탈행동(가출, 왕따시키기, 성범죄, 사이버범죄 등 16개 하위변인)들에 더욱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학교보다 중학생 시기에 더욱 현저(송미경, 2006)한 것을 보인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경로모형을 각각 분석하였을 때, 친구변인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매우 컸다. 여기에서 친구변인은 친구의 일탈행동 및 친구와의 애착관계 두 가지가 포함되었고, 청소년 일탈행동도 친구 일탈행동과 마찬가지로 일반비행 및 인터넷 비행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초기에서 중기로 점차 성장해 감에 따라 일탈행동을 하는 친구와 가까운 청소년일수록 더욱 일탈행동에 개입함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 발달에 따라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점차 더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도덕적이탈의 마음

도덕적이탈(Bandura, 1995)은 일탈과 관련된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의미있는 변인임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 일탈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도덕적이탈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일탈행동이 도덕적이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a)

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 가해집단 피해집단 무경험집단간의 도덕적이탈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가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밝혀졌는데($p<.001$), 폭력 가해집단은 피해집단이나 무경험집단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이탈된 심리를 갖고 있었다.

한편 위탁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을 비교(박영신, 김의철, 2001b)하였을 때에도, 도덕적이탈에서 의미있는 차이($p<.05$)를 보였다. 그림 11의 가운데 그래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위탁청소년이 일반 중 고등학생들보다 더욱 도덕적으로 이탈된 경향이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을 비교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에서도, 보호관찰청소년이 더욱 도덕적이탈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확인($p<.001$)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1의 오른쪽 그래프에 제시되어 있다.

도덕적이탈의 하위변인별로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들도 있다. 그림 12의 왼

쪽(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도덕적이탈의 하위변인으로서 상대적 비교와 도덕적 정당화가 모두 청소년 일탈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관계효능감은 두 하위변인과 비록 상관의 강도는 낮았으나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덕적이탈의 심리를 가진 학생들일수록 일탈행동에 더욱 관여하고, 오히려 관계효능감은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이버일탈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의 가운데 그래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a)이다. 도덕적이탈의 하위변인인 상대적 비교($r=.36$)와 도덕적 정당화($r=.25$) 모두 사이버일탈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관계효능감($r=-.22$)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일탈행동들(예: 학교 무단결석, 유흥업소 출입, 이성친구와 성적인 접촉, 가출 등)을 다룬 선행연구 결과(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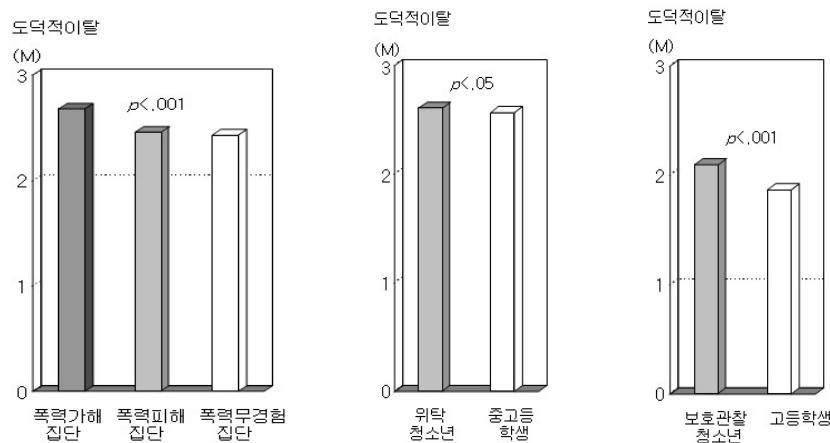


그림 11. 일탈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도덕적이탈의 차이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1a, p.76); 박영신, 김의철(2001b, p.41);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6, p.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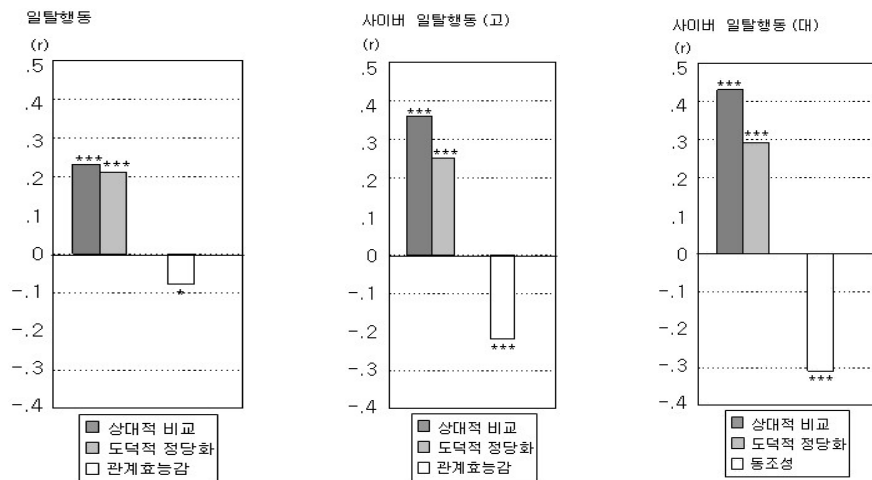


그림 12. 도덕적이탈, 관계효능감과 일탈행동 및 사이버일탈행동의 관계

출처: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2007, p.13);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2007a, p.244);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2007b, p.125)

인다.

대학생의 사이버일탈행동을 다룬 연구 결과(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b)가 그림 12의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다. 상대적 비교($r=.43$)와 도덕적 정당화($r=.29$) 모두 높은 정적인 관계를 보임으로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이탈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사이버일탈행동에 많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격의 하위변인으로서는 동조성과는 부적인 관계($r=-.31$)에 있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동조성은 관계효능감과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동조성 외의 성격적 특징과 일탈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성실성($r=-.20$) 및 개방성($r=-.18$)이 모두 부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성실하지 못하거나 개방성이 약한 청소년들일수록, 사이버일탈행동에 개입하는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도덕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관계효능감이 낮거나 동조성이 약한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일탈행동만이 아니라 사이버일탈행동에도 더욱 개입하였다. 그런데 청소년만이 아니라 대학생과 같은 청년들도 도덕적이탈과 사이버일탈행동 상관의 강도가 높았다.

여기에서는 일탈청소년의 심리특성으로 핵심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이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이외에도 일탈행동과 관련하여 분석한 심리변인들이 있다. 예컨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일탈행동에 관련된 결과들(박영신, 김의철, 2001a; 2001b; 예정b;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이 그동안 누적되어 왔다.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여 다른 심리특성들과 일탈행동에 관련된 연구결과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개관하기로 한다.

소년들이 일탈 경험을 하고 나면, 나중에 또 다른 유형의 일탈행동들에 개입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폭력피해경험이 폭력가해행동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써($P=.56$), 폭력의 피해자들이 나중에 가해자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일탈행동이 또 다음의 일탈행동으로 연결되는 순환적 구조는 청소년의 경험과 심리 행동의 형성에 대한 모형(박영신, 김의철, 2001a)을 통해 개념적 차원에서 제안된 바 있다.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경험은 그러한 경험에 대한 의미부여의 단계를 거쳐, 심리적으로 도덕적이탈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일탈행동으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주위에서의 부정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 다시 부정적인 경험을 누적시켜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경험이 계속 누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누적적 순환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의 그림 1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성취와 일탈의 세계를 질적으로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처 지원 방안

우리는 이 글을 시작할 때, 성취와 일탈의 세계가 질적으로 다르며, 일탈행동을 성취의 삶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을 도우는 가능성(그림 1 참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 글을 써 나가는 동안에, 최근의 경험과학적 연구들을 개관함으로써, 다양한 결과들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핵심 내용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이 갖는 제한점은, 최근의 경험과학적 연구들을 모두 종합한 것이 아니며 일부 연구들에 대한 개관에 그쳤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관련 연구를 종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의미있는 연구 성과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개관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뜻있는 일임에 분명하며, 다음에 이러한 주제로 또 개관을 하는 기회가 있었을 때 보다 폭넓은 자료들을 기초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 이 글을 맺으며, 일탈청소년을 구원하는 생명선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현실 속에서의 현상 자체도 매우 복잡한데, 이 글에서의 선행연구 개관 자체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어내어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만용일 것이다. 그 답을 다 알면 더 이상의 연구가 필요 없을 것이며, 그 답을 다 실천했으면 유토피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 엄청난 화두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내릴 수도 없으며, 또한 하나의 정답을 기대하며 정답을 선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능합직한 답들 중의 일부에 접근해 보는 시도 정도로 글을 맺으려 한다.

그러므로 결론이라기보다는 후속연구의 방향을 위한 제안 정도로 이해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여기에서 후속연구의 방향을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는 한국인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에 토대를 둔 청소년 일탈행동의 분석과 지도 및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둘째는 청소년의 개별적인 일탈행동 자체의 제거나 교화보다도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

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탈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적 지원체제의 구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구원의 생명선은 어디에:

토착심리 이해의 필요성

자녀들에게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는 매우 독특한 토착적인 측면들(박영신, 김의철, 2004a)이 있다. 부산 태종대 자살바위에 모자상을 세운 후에 그곳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유명한 일화(박영신, 김의철, 2004b)는,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인가를 증명하는 예이다. 몸부림 칠수록 높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밧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서 던져질 수 있으며, 그 생명선이 무엇인지는, 이러한 모자상과 관련된 실례를 통해 쉽게 짐작된다.

부모의 성취압력과 일탈행동의 요인구조를 살펴본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0)는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가 매우 토착적인 특징이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가 그림 1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초등학생의 요인구조를 살펴보면,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와의 갈등이나 통제와 가까운 위치에 부하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 경우에 부모로부터 성취압력을 받는 것이 통제받는 것이나 갈등을 느끼는 것과 유사한 의미공간에 위치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와 갈등은 부모의 적대나 거부 및 무관심과 같은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 및 일

탈행동과 가까운 요인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애정, 사회적 지원, 이해도, 성취동기와 같은 변인들은 학업성취나 생활만족도와 가까운 변인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의 요인구조를 보면, 부모의 적대 거부 갈등 통제 무관심과 같은 양육태도 변인들이 자녀의 일탈행동과 같은 요인에 속해 있는 것은, 초등학생에 대한 요인구조에서와 동일하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원, 이해도, 애정, 보내는 시간, 성취동기가 생활만족도 및 학업성취와 동일 요인에 속하는 사실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성취 및 생활만족도 변인들로 구성된 요인1에 훨씬 가까이 접근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물론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성취동기는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림 14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부모의 성취압력이 강할수록 자녀의 성취동기가 높을 가능성은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러나 부모의 성취압력이 초등학생 시기에서는 부모의 통제나 갈등과 같이 부정적인 인식과 더 많이 결부되어 있는데 비해, 대학생 시기에는 부모의 이해나 사회적 지원 등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들과 더욱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성취압력에 대한 지각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따른 부모성취압력에 대한 지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적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이나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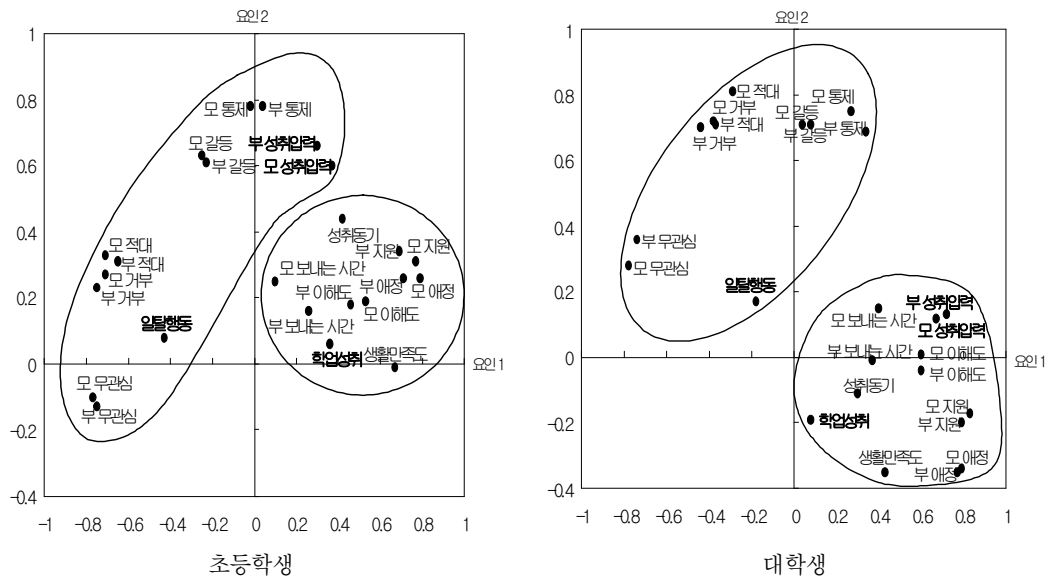


그림 14. 부모의 성취압력과 일탈행동의 요인구조 변화: 초등학생과 대학生の 비교

출처: 박영신과 김의철(2000)¹⁾

시사한다. 이러한 한국인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심리적 과정을 정교하게 진단하며 통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자녀관계와 일탈행동의 역동적인 과정을 정리한 결과가 그림 1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토대하여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토착심리적 접근을 개념모형으로 제시한 것이 그림 16이다. 부모가 자녀

에 대해 희생이 없으며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이러한 부모는 자연히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기대가 낮으며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고, 자녀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가정의 구조적 환경에서 살펴보면, 예컨대 보호관찰청소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도 낮고, 친부모가 아니거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이러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 효도의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죄송함이 결여되어 있는데, 부모로부터 버려진 느낌을 갖고, 절망하고 갈등하며, 부모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 도덕적으로 이탈된 심리상태가 되며, 결국 가출행동도 쉽게 하게 된다. 요약하면, 부모의 희생이 결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자녀는 죄송함이 없음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결국 부모

1) 박영신과 김의철(2000)의 연구에서 표집된 1,074명(초 287, 중 266, 고 252, 대 269; 남 531, 여 543)의 자료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 재분석을 하였음. 각 표집집단별 평균 연령은 초, 중, 고, 대학생 각각 11.31세, 14.27세, 16.78세, 21.52세이었으며, 대학생의 연령분포는 18세부터 27세로서 변산이 큰 편이나, 초 중 고 집단은 연령이 거의 동질적이었다.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varimax rotation, 요인의 수=2)을 하여 나온 요인 부하량의 결과에 기초하여 제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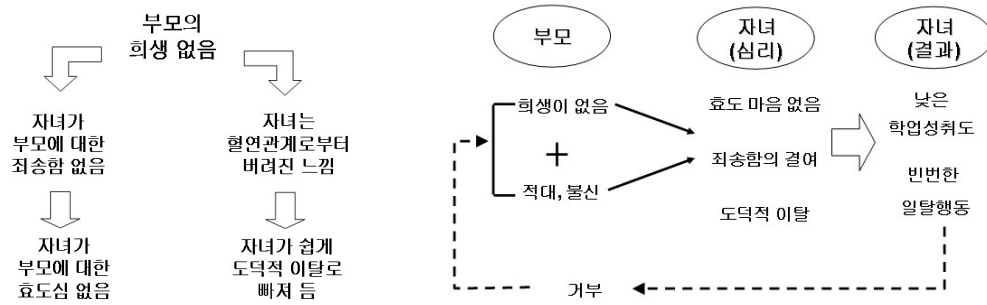


그림 15.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와 일탈행동의 역동적 과정

출처: Park & Kim(2004,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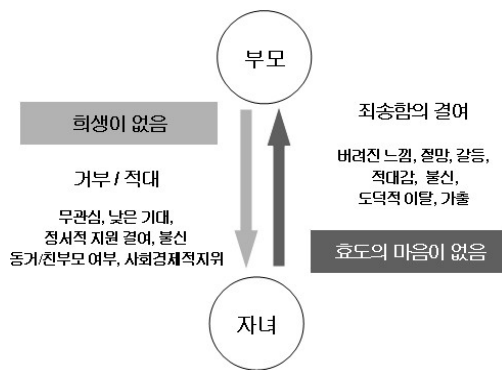


그림 16. 개념모형: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토착심리적 접근

출처: Park & Kim(2004, p.12)

소년의 일탈행동을 진단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이론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차원이 아닌,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해의 틀을 구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 토착심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청소년 일탈행동 예방프로그램이나 교정프로그램의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탈을 넘어 희망의 세계로:

일탈청소년의 삶의 질 모색

의 태도가 자녀의 일탈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청소년 일탈행동의 과정에서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진단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감에 있어서 한국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역동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화 맥락 속에서 토착심리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은 다양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Kim & Park, 2007)되어 오고 있다. 한국청

일탈청소년이 칠흙같은 어두움에서 헤쳐 나오는 획기적인 새로운 순환의 시작은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일차적으로는 일탈청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통해 스스로 새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도 결국 사회적 지원의 맥락 속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일탈행동이나 또는 학교폭력행동에 개입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폭력피해를 경험한 대상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폭력피해를 받은 청소년들이 결국은 폭력가해나 일탈행동으로 쉽게 연결된다는 증거들(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에 토대해 볼 때, 일단은 청소년이 폭력피해 상황에 처했을 때 효과적인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제적인 조력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 피해상황에서의 실제적인 대처를 도와주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자료들을 제작해 왔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제작된 자료(교육인적자원부, 2005)의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각 사례별로 학교 행정차원에서 학교 및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대처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례들이 현장의 구체적인 모든 사례들을 포괄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학교가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를 주로 다루므로써 학교행정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학생들의 대처능력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자료로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피해청소년들의 실제적인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에 토대를 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박영신, 김의철, 2001c)과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효능감 이론을 활용하여, 예컨대 폭력피해 학생에게는 폭력피해 대처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누적되는 피해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폭력가해 및 일탈청소년으로 되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갖는다.

물론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은 폭력가해나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이탈의 악순환

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세계로 질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을 함양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심리적인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비행과정에서 탈비행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해 볼 때, 현재 비행의 억제나 제재보다는,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성장욕구에 초점을 두어 성장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희연, 2005)된 바 있다.

또한 일탈청소년에게 희망의 새 삶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실마리를 사회적 지원이 있는 온정적인 인간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하였다. 부모의 거부와 적대가 아니라 희생과 정서적 지원 등은 일탈청소년의 방향을 바로 잡는 가장 강력한 별빛이자 나침반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탈청소년의 부모 그리고 가정이라는 가장 강력한 지지대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대와 신뢰의 시선으로 대리 부모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담임교사를 만나기도 학교현실에서 어렵다. 또한 일탈청소년이 만나는 주변 친구란 어려운 환경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래 모델링을 할 만한 건전한 친구집단이 없다.

일반청소년들의 부모조차도 자녀의 일탈행동이나 일탈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정확하다. 박효정(2005)이 전국 초 중 고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학교폭력이 어느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학생들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을 33.7% 밖에 하지 않은 것에 비해, 교사들은 40.6%가,

학부모들은 74.2%나 응답하였다. 즉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학교폭력으로 직접 시달리거나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실감을 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일반청소년들의 부모조차 이렇게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데, 일탈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부모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 친구 교사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무엇이 되었든 부모의 대리적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건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일탈청소년은 혼자서 일탈행동을 한다기보다 공범 또는 모델링이 되는 또래 집단이 있다. 일탈청소년들은 그러한 공범이나 또래 집단으로부터 모델링을 통해 단순히 일탈의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온정적인 인간적 관계와 유대를 원하고 피드백을 얻고 거기에서 소통되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거부된 상처를 서로 공유하면서, 가정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일탈청소년들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게 된다. 이와같은 강한 유대감 속에서 일탈행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범이나 또래집단으로부터 벗어나오는데 도움이 될 건전한 관계가 필요하며, 그 역할을 부모가 할 수 없을 때는 최소한 부모의 역할을 해 줄 관계가 필요하다.

탈비행을 성공적으로 이룬 또래집단의 예는 모델로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래집단의 존재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 형제 또는 학교의 선생님과 같은 의미있는 주위사람들과의 건전한 인간관계 또한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사회적 지원이 성취(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와 생활

만족도(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를 증진시킬 뿐만아니라, 일탈행동은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은 여러 주제를 다루는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사회는 관계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고 인간관계가 중요(김의철, 박영신, 2006a)하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정서적 지원이나 정보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이 갖는 영향력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탈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온정적인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인간관계 망의 구축이 중요하다. 단 한사람이라도 누군가 진정으로 자기를 믿어주고 따스한 지원과 격려를 해 준다면, 그들은 구태여 일탈을 삶의 양식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일탈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은 이미 위에서 밝혔다(그림 14 참고). 그림 17은 부모자녀관계 외에도 친구관계와 교사학생관계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의미있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이나 교사와의 적대적인 관계가 청소년 일탈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탈행동과 학업성취의 요인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 17에서 인간관계 변인 외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적이탈이나 누적된 일탈행동이 청소년 일탈행동과 동일한 요인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인간관계가 심리적으로 도덕적이탈과 관련되어 있으며 결국은 청소년 일탈행동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 반대편 요인, 즉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자기효능감 및 성취의 세계가 마음속에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인간관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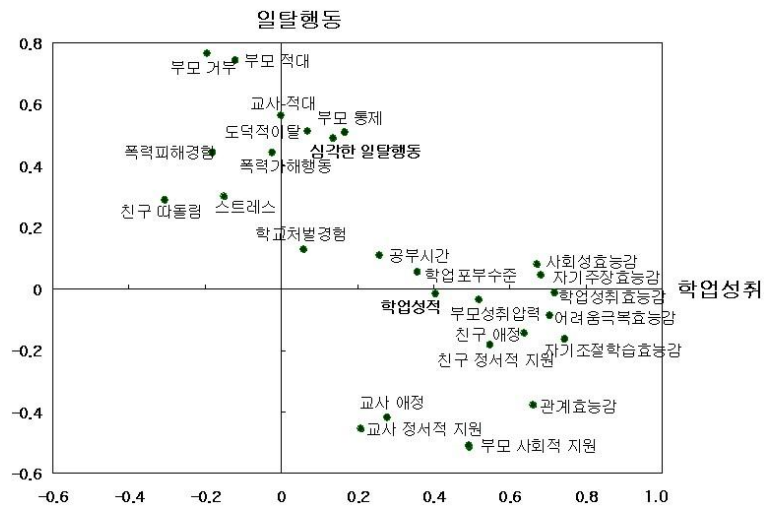


그림 17. 일탈행동과 학업성취의 요인구조

출처: Park & Kim(2004, p.12)

중요성은 이미 선행연구들(김의철, 박영신, 2006b)에서 밝혀져 왔다. 이제 일탈청소년의 일탈행동 제거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 문제로 관심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중학생을 대표하는 표집설계를 하여 중학교 3학년 시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박선희, 2007)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들은 채팅, 게임, 정보탐색, 동호회 활동의 순서로 인터넷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연구도 기존의 일탈행동 하위변인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일탈행동의 세계로 관심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박영신, 2007)에서 지적되었다. 또한 박영신(2003)은 한국인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와, 삶의 질 및 사이버일탈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예정a)은 날로 심각해져 가

는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이버일탈행동의 영역으로 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불법정보유출, 성적 일탈로 조작적인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사이버일탈행동들과 초·중·고 대학생 집단으로 구성된 청소년들의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예정a)가 그림 18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삶의 질은 가정의 화목, 원만한 친구관계, 개인적인 성취, 자기조절, 주관적 안녕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물론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초·중·고 대학생 모두 사이버일탈행동과 삶의 질 간에 부적인 관계를 보임으로써, 사이버일탈행동에 개입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곽금주(2004)는 컴퓨터게임의 영향을 시각운동측면, 인지적 측면, 정서와 성격 측면, 공격성 및 사회성 발달 측면, 중독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렵고 연구방법이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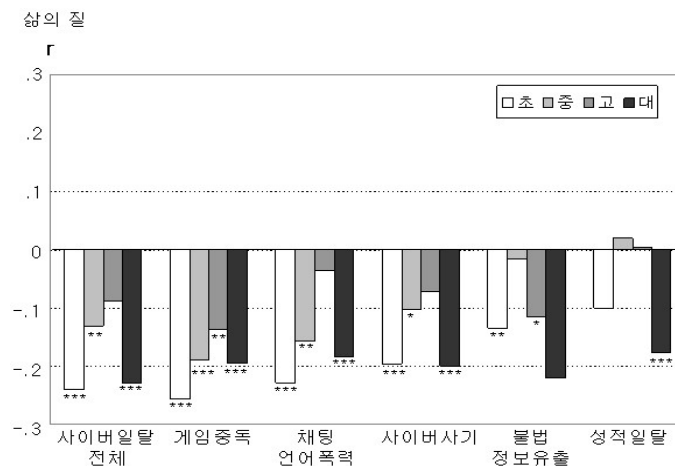


그림 18. 초, 중, 고, 대학생의 사이버 일탈과 삶의 질

출처: 박영신, 김의철(예정a)

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 아동의 놀이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적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매체도 잘 활용하면 유익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해로울 수 있다.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사이버 세계에서 일탈행동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바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긍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청소년들이 사이버윤리를 내면화하고 올바른 판단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적절한 교육이 앞으로 더욱 요구된다.

이 글을 시작하며, 성취의 세계,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일탈의 세계, 그리고 일탈의 세계에서 성취의 세계로 연결을 꿈꾸는 가능성의 세계라는 세 가지 형태의 세계를 제시하였다.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탈의 세계 내에서 하강효과를 갖는 이동은 매우 자연스

럽고 확고하며 동시에 용이하다. 물론 성취의 세계 내에서 상승효과를 타는 이동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그러나 이들을 잇는 가능성의 세계는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면서도, 동시에 해법이 난해하다. 자연스럽고 용이하여 누적되어 나가는 일탈의 세계보다는, 불안정하면서도 변화에 어려움이 큰 가능성의 세계를 꿈꾸고 추구해야 한다. 일탈 청소년의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몸부림,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본인과 주위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가 다 같이 추구해 나가야 할 세계이다.

김의철과 박영신(2007)은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문제를 개관하는 틀로 SWOT 분석을 시도한 결과, 위협을 딛고 기회로, 약점을 딛고 강점으로 전환해 나가는 지혜와 저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탈청소년 본인과 주변의 사람들은 환경적 위협을 기회로, 약점을 강점으로 재창조하려는 새로운 마음의 에너지를 생성시켜야 한다. 좀 더 나은 외부환경과 같은 희망적 사건이 바깥

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 먼저 마음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는 내면적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구원의 생명선은 가능성의 세계에 몸과 마음을 싣고 성취의 밝은 세계로 나아가려는 자기 구원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주변인들은 일탈청소년의 이러한 마음에 불씨를 당겨주는 역할에 충실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일탈청소년 개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 삶의 질(박영신, 김의철, 2006) 향상의 시각에서, 이 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 구성원 전체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도움주기에 동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박금주 (2004). 컴퓨터 게임과 아동, 청소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특집호, 147~175.
- 박금주 (2005). 4장. 학교폭력과 왕따의 구조적 특징.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67~90. 서울: 학지사.
- 교육인적자원부 (2005). 2005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2006 청소년백서.
- 김경식, 이현철 (2006). 청소년의 비행에 낳는 요인. 한국청소년개발원, 제 3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 자료집, 601~621.
- 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 일탈행동 무경험집단과 경험집단의 환경, 심리, 행동 특성의 차이 분석.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13(2), 201~219.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김의철, 박영신 (2006a).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4), 1~36.
- 김의철, 박영신 (2006b).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1~28.
- 김의철, 박영신 (2007).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 (I): 교육의 현실,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발전 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5), 특집호, 1~31.
- 박선희 (2007). 인터넷 사용 수준과 청소년 정신건강과의 연관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 4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 자료집, 193~207.
- 박연정, 정옥분 (2003). 또래관계가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0(2), 75~92.
- 박영신 (2003).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2~213.
- 박영신 (2007).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2007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초청 심포지엄,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학습환경 디자인, 85~125.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1a).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 박영신, 김의철 (2001b).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박영신, 김의철 역 (2001c).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서울: 교육과학사.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c).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 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87~115.
- 박영신, 김의철 (2005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와 일탈행동에 대한 이해.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 2005년도 학부모 연찬회, 꿈 보람 만족을 위하여, 32~40.
- 박영신, 김의철 (2005b). 한국의 가족관계를 통해 본 청소년의 지도 방안: 청소년 일탈행동과 인간관계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가족관계를 통해 본 청소년 지도 방안, 7~42. 인천카운슬러협회.
- 박영신, 김의철 (2005c).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21~55.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김의철 (2007).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 (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5), 특집호.
- 박영신, 김의철 (예정a). 청소년 사이버 일탈과 삶의 질.
- 박영신, 김의철 (예정b).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친구의 영향.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중단 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1~41.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중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중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심리특성 비교: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 (2), 45~76.
- 박효정 (2005). 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 (2006).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송미경 (2006). 청소년기 아동기의 일탈행동 경로분석 비교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 자료집*, 585~600.
- 이희연 (2005).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16(1), 383~420.
- 정현희, 정순희 (2004).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1(2), 1~19.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3). 보호관찰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5~166.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a). 고등학생의 사이버 일탈과 인간관계, 심리특성 및 행동특성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4(4), 233~258.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b). 대학생의 사이버 일탈: 인간관계 및 성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춘계학술대회 '청소년학 관련 현안 이슈와 미래' 자료집*, 113~135.
- Bandura, A. (1995). Multifaceted scale of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Kim, U. (2002). Unraveling the complexities of human destructiveness, creativity, and potential: Indigenous analysis of the self, relationship, cultures and civilizations. Presidential address of Division of Psychology and 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Singapore, July 7-12.
- Kim, U., & Park, Y. S. (2007). Development of indigenous psychologies in the global context: Understanding people in cultural context. In M. J. Stevens & U. P. Gielen (Eds.), *Toward a glob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interventions, and pedagogy*. 147~17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Park, Y. S., & Kim, U. (2001).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school violence. Paper presented at the 4th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Park, Y. S., & Kim, U. (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Keynote address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11~12. August 2-6, Xi'an, China.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1. 21

최종 원고 접수일 : 2008. 01. 23

The cost of pressure to achieve in Korea (Ⅲ): The psychological dynamics and factors influencing delinquent behavior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Uichol Kim

Inh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cost of pressure to achieve in Korea, which is the theme of the special issue focusing on the psychological dynamics and factors influencing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 adolescents. This article reviews empirical studies of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 and articulate policy and programs necessary to prevent the rising trend. First, in order to prevent delinquent behavior and enhance their self-efficacy,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o allow them to succeed in non-academic areas. Second, adolescents who engage in delinquent behavior are likely to experience problems in interpersonal, such as parental rejection, social exclusion from friends and hostility from teachers. Third,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s are influenced by negative parental socialization practices, delinquent behavior of their peers, moral disengagement and their previous participation in delinquent behavior. Fourth, the importance of indigenous psychological approach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for adolescents who engage in delinquent behavior is outlined.

Key words : delinquent behavior, socialization practices, social exclusion, hostility, indigenous psychological approach, cyber delinquency, quality of life.